

**1968년 사회운동의 포괄적 정보
다양한 사회운동의 이론논의 부실**

《신좌파의 상상력》



조지 카치아피카스 지음/
이재원 · 이종태 옮김
이후/A5신/544면/14,000원

1998년 여름 프랑스의 아를르에서 열리는 국제 사진축제는 1968년 5월운동 30주년을 맞이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야외 극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비친 1968년 당시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이탈리아·멕시코·일본 등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찍은 다양한 사진이 3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되돌려 놓고 있었다. 그때 나는 변화를 향한 열망을 회상시키는 이미지를 넘어서 그 같이 엄청난 사회적 열망의 분출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을 갈망했다. 그로부터 1년 후 1999년 5월 서울에서 번역·출판된 《신좌파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줬다.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년’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1968년을 기점으로 일어난,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의 사회운동,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사회운동, 그리고 멕시코와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등 제1세계·제2세계·제3세계의 사회운동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미덕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일어난 사회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나름의 설명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1968년을 기점으로 한 사회운동에 대한 책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자료집이 아니라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 책의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세계체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운동을 설명할 이론적 논의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과학계의 기존 사회운동론을 비판하는 장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덧붙여졌을 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입장은 불투명하다.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2차대전 이후의 냉전질서에 대한 도전이 왜 1968년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건사적으로만 다루진다.

둘째, 개별 국가의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부족하다. 최소한 서방 선진국,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의 사회운동은 각각 운동이 일어나는 국제적 맥락과 국내적 조건이 다르다. 이를 구별해주는 유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여러 나라의 사회운동을 영어로 쓰인 자료에만 의존해 연구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미국 신좌파의 관점으로 다른 나라의 사회운동을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1968년 5월 운동을 다루면서 그 의미를 대학의 위기로 축소시켜 보는 우파 사회학자 레이몽 부동의 영어 논문은 참조하면서 영어로도 번역된 프랑스의 신좌파 사회학자 알랭 투렌이 5월운동을 분석한 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번역자들은 옮긴이 주까지 다는 성의를 보였으며 읽을 만한 자료도 친절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보자르’를 ‘보아르’라고 표기하는 것 등의 작은 오류가 보이며, 정수복이 1993년에 쓴 1968년 프랑스 5월 운동에 대한 글을 더 읽을 만한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국내의 연구 성과를 존중할 때 번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정수복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저서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생태학적 상상력》, 역서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외.

**과학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 분석
기업체 연구소 집단 제외 아쉬워**

《과학자와 과학자집단》



오진곤 지음
전파과학사
/A5신/278면/10,000원

전북대 과학학과 오진곤 교수가 펴낸 《과학자와 과학자집단 : 그들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과학자와 과학자집단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국내 서적으로는 최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자집단을 본격적으로 다룬 학문적 업적이 거의 없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사(修辭)와 현실의 간극은 접어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과학기술자집단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하는 작업이 크게 부족했다. 이 책은 이런 간극을 메우려는 저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맺은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과학자집단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간략히 고찰하는 것에서 출발함으로써 과학자집단과 같은 생소한 주제에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과학자의 책임을 다루면서 저자는 ‘연구에서의 책임’과 ‘사회에서의 책임’이라는 범주로 구분한다. 전자와 관련해 저자는 과학자의 연구결과가 심사를 거쳐 세상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과학자의 연구 윤리를 박진감 있게 분석한다. 후자와 관련한 저자의 시야는 무기개

발이나 유전공학 같은 연구개발활동은 물론 정책적 자문이나 실천적 운동 같은 사회적 활동까지 포괄한다. 또한, 이 책은 2차 대전을 전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10명의 과학자를 소개함으로써 과학자가 인간적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기가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암시한다.

이 책에서 특히 흥미롭게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날조하는 행위, 결과를 위조해서 보고하는 행위, 다른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저자는 이런 부정행위를 제재할 때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를 충분히 공개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과학자 및 과학자집단의 책임에 대한 분류다. 과학자 개인의 학문적인 책임, 과학자 개인의 과학자집단에 대한 책임, 과학자 개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자집단의 사회적 책임, 과학자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책임, 과학자의 국제적 책임, 개발도상국에서 과학자의 책임이 그것이다. 이런 분류는 과학자 및 과학자집단의 책임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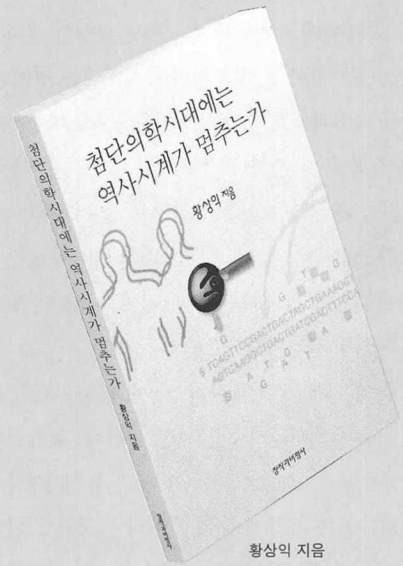
이처럼 이 책은 과학자 및 과학자집단과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쉬운 문장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날 과학기술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체 연구소에 속한 과학기술자집단이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앤드류 웹스터, 《과학기술과 사회》(한울, 1998), 5장 참조). 하지만 이것이 이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와 관련된 작업은 평자를 포함한 후학들에게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송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원.

의학의 맹목적 신뢰에 도전
현장과 거리가 있는 관념적 기술

《침단의학시대에는
역사시계가 멈추는가》



황상의 저음
창작과비평사
/A5신/334면/9000원

이 책의 저자는 의학의 역사를 뜻하는 의사학(醫史學)을 전공하며 대학에 재직한 몇 명 중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은 것으로 의사학만 아니라 의학 윤리, 의료체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글이 실린 곳이 대중매체가 많은 만큼, 유전자조작이나 복제인간 또는 의사 환자 관계처럼 일반인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윤리적인 주제에 대해 문제와 쟁점을 소개하고 저자의 견해를 밝힌다.

의학에 관한 글이 흔히 지니는 전문성이나 딱딱함을 벗어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돼 의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의학의 역사를 다룬 장에서는 전염병이나 암 등 질병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존재했고 극복돼 왔는지 기술한다. 이밖에도 제주도 4·3시대처럼 얼핏 의학과는 멀어보이는 문제나 저자의 신변에 관한 사항도 수록돼 다양한 관심 영역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방식은 애초에 글이 실린 곳이 주로 대중매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매체 특성상 저자는 흥미롭

고 시사적인 주제를 골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으로 힘을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제에 대한 깊은 논의나 천착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 체계적이거나 일관성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다.

관심되어야 할 것은 저자의 메시지다. 《...역사시계가 멈추는가?》처럼 도전적인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침단의학에 대해 저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의학의 발달이 인간의 실질적 건강 향상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심하고, 의학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의 태도를 버리고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우려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라면 의학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경계하고 의학의 문제를 역사와 사회 속에서 봐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같은 저자의 견해는 물론 충분히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다. 지적할 것은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사용한 근거가 얼마나 독창적이며 현실에 뿌리박은 것이냐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점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침단의료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현장과 거리가 있는 관념적인 기술이 눈에 띄며, 근거로 인용된 자료는 외국의 것이 많고 부족한 데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자칫 그 주장을 공허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저자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자신의 전공분야인 의학의 역사는 분야를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뒀다. 이 책의 글이 실린 다양한 매체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발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세계에 적합한 이론의 정립과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천착하는 것만이 이런 종류의 활동이 자칫 받기 쉬운 공허하고 관념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형식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저서 《의학연구 방법론》 외.